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동영



한·미 FTA(자유무역 협정) 본협상이 본격화되면서 국론이 양분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FTA가 글로벌 경제시대에 피할 수 없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주장을 펴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농업을 비롯 전 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미국 원정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듯 우리 사회의 갈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협상 상대는 지구상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이다. 정부는 '최대환' 요구하고 양보는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는 만큼 간단치 않다. 칠레나 싱가포르와는 비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지루한 '줄다리기'가 될 것이다.

농업부문 심각한 타격

정부는 한·미 FTA가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중국 등 후발국가의 매서운 추격 등을 감안할 때 '선택과

목'이 아닌 '필수과목'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한·미 FTA를 '경제 고속도로'에 비유하고 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전용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의

국론 분열 조장하는 한·미 FTA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복잡한 국도에서 법정속도인 60km도 못내고 있는 우리 경제에 한·미 FTA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전용고속도로가 될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개방은 경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는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올 미국의 교육, 의료, 에너지, 금융, 쌀, 축산물, 과실류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경쟁에서 살아남은 부문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국가경쟁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 틀림없다. 우리의 입장에서 이러한 품목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교육, 의료, 금융, 쌀, 과실류 등 상당수 분야는 질 좋은 미국 상품에 밀려 경쟁력을 잃게 되고 기업과 농민, 노동자들은 퇴출과 도산, 실직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

무엇보다 이 지방의 주산업인 농업부문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한국의 농산물시장을 전면 개방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농업 부문을 별도 항목으로 다룰 것과 농업보조금 철폐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

정도의 실직자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는 이제라도 협상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이라는 단순 논리로 접근해선 안된다. 실사 '득'이 많더라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현재 20:80의 사회가 자칫 10:90의 극단적 사회로 치달을 수 있다.

'준비안된 협상 비정상'

정부는 정대만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의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준비도 덜 된 한·미 FTA 협상은 비정상적인 행위"라며 "미국의 강력한 FTA 요구에 맞서 우리 정부도 강력한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아하게 협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충고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이미 심각하다. 한·미 FTA가 정부의 주장처럼 '실'보다는 '득'이 많더라도 노동자, 농민 등 시장개방에 따른 예상 피해 집단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일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런 대책마저 없다면 '우아한 후퇴'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농민들 국민 90%의 희생 아래 10%의 배를 불릴 수는 없다. <편집국 부국장> dykim@kwangju.co.kr

시설

DJ열차방북 성사는 北韓에도 이롭다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지난 6일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경공업 합의서)와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 추진 등 9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남북관계가 경색될 위기국면에서 남북열차시범운행을 조건으로 구체적 경험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다스런 선이다.

이번 남북 경공업 합의서 채택으로 오는 27일로 예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시 열차 이용이 가능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물리적 시한을 감안해 불행히도 열차 방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우리 측이 열차시범운행과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연계시키는 데는 일단 성공했으나 북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시범운행시기를 약속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측까지 합의하고도 지난날 열차시범운행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던 북측 인만큼 앞으로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할 것이다. 남측의 원자재 제공개시 시

기가 DJ 방북이후인 8월로 설정된 점도 열차 방북성사를 장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DJ 열차방북은 남한 뿐만 아니라 북한측에도 득이 되는 일이다. 남북열차가 운행될 경우 남북교역이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으로 전환되며 물류비 절감으로 남북간 교역량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금강산 관광역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특히 평생을 남북통일에 매진해 온 노경작이 기차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북한으로서는 개방의지에 대한 국제적 불신을 허물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핵문제와 위폐문제, 인권문제로 고립돼 있는 북한의 국제사회 위상을 높이는 부수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인 김 전 대통령 방북을 위한 제 3차 실무접촉에서 열차 방북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 DJ 열차방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측의 성실한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독선·아집 벗자는 담화 盧대통령부터 실천을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참모로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노 대통령은 "독선과 아집, 배제와 타도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역사발전의 장애물"이라며 "우리 정치도 적과 동지의 문화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 경쟁의 문화로 바꾸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기업들이 상품의 질과 서비스로 경쟁하듯이 정치도 정책과 서비스로 경쟁하는 시대로 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는 노대통령의 이날 메시지가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호국 영령들의 고결한 희생을 추모하면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당부하고자 하는 진심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또 한편 노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주문하기 전, 대통령 자신과 집권 엘리트들부터 독선과 아집을 버리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갖는다. 대통령의 담화는 5·31 지방선거의 여

당 참패와 노대통령 책임론·실정 심판론이 아직 부글부글 끓고 있는 와중에 나왔다. 특히나 여당의 참패는 노대통령과 참모들의 오만과 독선, 아집, 타협을 죄악시 하는 아마추어리즘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여당 내부에서도 거침없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되레 독선과 아집 탈피를 언급하는 건 자기반성과 다짐인지 국민과 야당에 대한 호소인지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100년전 망국과 식민 역사를 상기하며 "이땅의 권력자들이 편을 갈라 끊임없이 싸우다가 당한 일이며,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라를 일으켜야 할 때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여 스스로 일어설지 못하게 한 결과"라고 말하기도 했다. 참모들은 인식이이다. 대통령의 추념사가 자기 다짐인지 호소인지는 차치하고 이제부터라도 편 가르기 보다는 통합으로 나라를 이끌어주기 바란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평칼럼

류동훈



한국은 의료체계가 양방과 한방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몸이 아프면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치료를 하다가 효과가 없으면 양쪽을 서로 옮겨가기도 한다. 의료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하였는지 알지 못한 채 새로운 치료를 한다. 이렇게 옮겨다니다 치료시기를 놓쳐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거나 상대측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제대로 진단 못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중적인 치료비를 부담하는 상황을 꼼꼼이 생각해 보자. 몸속의 암세포가 동양암세포, 서양암세포로 나뉘는가? 관찰염이 동양관찰염이 있고, 서양관찰염이 있는가? 질병은 동양과 서양으로 나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질병에 대한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치료법

통 의료인들에 의해 변증법적인 논쟁과 검증은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의 의료체제로 발전했을 것이다.

그렇시, 양·한방으로 나뉜 것은 일제시대로 인해 정상적인 발전을 하지 못한 의료역사의 왜곡으로 빚어진 결과이다. 양·한방의 일원화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가다.

양방과 한방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가장 좋은 치료법을 만들어서 치료해 주면 좋겠다. 비전문가인 환자가 스스로 진단을 하여 양방과 한방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인 의료인들이 알아서 가장 좋은 치료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하지만 의료계 논의로만 의료일원화

양·한방 의료일원화 논의 필요

은 하나이다. 몸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동양식이든 서양식이든 병만 나으면 된다. 의료는 철학이 아니고 기술이다. 수학이 동양·서양으로 나뉘지 않고, 과학이 동양과학, 서양과학으로 나뉘지 않듯이 의학은 의학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양의와 한의가 나뉘게 되었을까? 일제 시대 이전 우리나라는 한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일본은 한의를 제도적으로 금지시키고, 양의를 받아들일게 하였다. 우리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서양의료기술이 접목된 것이 아니다. 해방 이후 1951년 국회에서 한방의료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면서 의료일원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만일 일제시대가 없었더라면, 서양의료 기술은 전

를 국한시하게 되면 이해관계의 충돌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지 못한다.

의료일원화는 양방과 한방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한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담론을 진행시켜 일원화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야한다.

정부 역시 이익집단의 충돌로만 보고 미적거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생략되어버린 의료 역사발전의 변증법적인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 의료인들은 서로의 의료기술을 존중하면서 좋은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광주전남개혁연대 사무처장 2006년1월 수성자>

'은평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평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평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안명원



민선 4기 지방 동시선거가 막을 내렸다.

부분적으로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문제가 된 점도 나타났다. 당선 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차치 살림에 지장을 주고 재선거를 하는 문제 등은 어떻게든 당선이 되고 보자는 것이든 논공행상으로 인사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 선출방식에 따른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제도 개선으로 투명해 지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선거는 정책을 무기로 겨뤘으

실이라는 미명으로 나누로 내렸으니 만큼 10km 거리인 핵심도시와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 '근무는 나누서, 생활은 광주에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둘러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민선3기 생산도시로의 기반을 더욱 완벽히 다질 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수출 효자인 자동차와 디지털전자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계속 육성해야 한다.

그밖의 R&D, 디자인, 관광산업, 금융, 콜센터 등 서비스산업에 이르기까지 고용을 늘리는 분야라면 과감히 추진할

민선 4기 시장에 거는 기대

로 앞서 3번의 선거보다 부정당선 후유증이 덜 하리라 보지만 이번에도 여는 때 보다 바짝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그것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주민소환제 때문이다. 우리 시민은 이 제도를 크게 환영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민선 4기는 우리 광주로서는 참으로 중요한 4년이란 계 뜻있는 시민은 이미 알고 있는 바다.

첫째, 문화중심도시를 국책사업으로 조성하는 20년 사업기간 중 주춧돌을 놓는 가장 중요한 시기란 점이다. 계획된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생략되어버린 의료 역사발전의 변증법적인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 의료인들은 서로의 의료기술을 존중하면서 좋은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나주핵심도시 건설로 광주가 실속 있는 시너지효과를 챙기는 일이다. 한전을 광주·전남 핵심도시 공동건

일이다. 넷째, 복지와 문화에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이번 선거가 여는 선거와 다른 점은 정책선거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임기 중 공약을 실천 할려는 당선자는 부담으로 짓눌릴 것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임기가 끝난 후 공약을 100% 지켰는가'라는 것을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다.

4년이란 기간이 결코 길지않은 않다고 볼 때 여건이 가능한 공약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장 당선자가 내건 9개 공약 달성은 물론 특히나 일자리 13만 4천개를 만들고 계속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해 잘사는 일등광주를 거머쥘 만드는 경제시장이 되라는 뜻이 담겨 있다.

공약실천평가위원회 같은 기구를 뒤엎고 임기 받는 방법도 의지의 실현이 아닐까

<학문당 대표>

국제 결혼 인증... 제도적·행정적 지원 마련돼야

국제 결혼이 급증하면서 주변에서 국제결혼 부부들을 쉽게 접하지만 여전히 이들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

이주 여성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공공 서비스는 미흡한 수준이어서 취업은 고사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주 여성들이 많다.

특히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2세 혼혈자 대부분이 육아 과정에서 한국어가 서툰 모친 영향으로 언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학교에서도 또래들에게 '튀기'라는 놀림을 당하기 일쑤다.

이들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부실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될 우려도 높다.

이미 우리 나라에서 국제 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어섰고, 2세까지 포함하면 오는 2010년에는 10만명에 이한다고 한다.

순혈주의에 얽매는 시대는 지났다. 이주 여성들이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이들 가족들이 일상 생활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이형준·광주시 서구 금호동

無等鼓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사이버 베이비' 붐이 일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남녀 사진을 합성, 2세의 모습을 미리 보는 이들은 고등학생부터 기준 30대까지 월 6천여명에 이른다 한다. '출산을 세계 최자'인 한국이 가상세계에서는 '2세 만들기'가 한창이구나 아 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2세 합성' 프로그램은 남녀 사진 2장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2세를 볼 수 있다. 처음엔 일부 네티즌들의 장난 수준이었지만 '2세 예측' 인기를 끌자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업체도 생겨났다.

지난해 10월부터 '디지털 2세 만들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는 P사는 2장의 사진만 제출하면 범인 몽타주를 만드는데 사용했던 '모르핑(morphing)'기법을 활용해 2세를 만들어준다. 하루 이용객이 200~300명에 이른다고 한다.

1사에서도 '아들 딸 게임'이라는 2세 예측 시스템이 최고 인기 코스로 자리잡았다. 사진을 직접 찍은 뒤 합성기법

을 통해 2세를 보여준다. 이 회사는 원래 '미래 내 모습 보기' 시스템이 있었으나 '2세 보기' 인기몰이에 대체했다.

사이버 2세의 인기가 폭발한 건 한 방송사가 유명 남녀 연예인을 등장시켜 결혼한다는 가정 하에 탄생할 딸의 사진을 공개하면서부터다. 이는 젊은이들의 모방으로 이어졌고 사이버 회사들의 상업화로까지 발전하게 됐다.

이런 현상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연예인 사이트들이 이런 방법으로 할리우드 커플의 미래 아기를 공개, 인기를 끌고 있다. 본의 아니게 결혼도 않은 할리우드 스타들의 가상 2세가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가진 2세 생산 본능을 현실의 경제적·육체적 고통없이도 단 몇 분 만에 충족시켜 준다는 '가변성'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사이버 베이비 붐.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의 청신호로 작용할까 바라다면 무리일까.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사이버 베이비



건강 사랑 콘서트, 즐길거리 제공하며 정책홍보 효과만점

최근 가족들과 산책을 나갔다가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공연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국민사랑 건강사랑 콘서트를 지켜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공연도 하나 싶어 의외였는데 '도깨비소풍'과 '난타' 공연 등 프로그램이 알차게 채워져 공짜로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다.

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리는 행사이다 보

니 공연 틈틈이 시민들을 상대로 사회자의 안내로 건강보험에 대한 홍보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콘서트를 이용, 중간 중간 설명하는 탓에 내용이 부분하거나 장황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시민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면서 정책을 홍보한다는 점에서 이번 공연은 홍보 효과 컸다고 생각된다.

▲정진·광주시 동구 소재동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